

## 신라불교사상사와 『삼국유사』 의해편

정 병삼(숙명여대 한국사학과 교수)

### I. 머리말

一然(1206~1289)이 지은 『三國遺事』는 무신란 이후 고려 후기의 혼란한 사회에 대한 자각과 반성에서 그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적 기준을 찾기 위해 과거의 전통을 재인식하려는 문화적 배경에서 생겨났다.

이러한 배경에서 편찬된 『삼국유사』는 우리 역사를 자주적인 입장에서 새로이 이해해 보려는 역사적 신이에 대한 기록과, 불교 신앙의 옹호를 위한 불교적 신이에 대한 서술 주제를 선택하여 광범위한 사료를 수집하여 자유로운 체재로 전개한 것이었다.<sup>1)</sup>

『삼국유사』보다 150년 앞서 고려문화의 난숙기에 편찬된 관찬 사서인 『三國史記』는 정치제도 중심의 현실 문제를 주 내용으로 다룬 것이었고 그 편찬을 주도한 金富軾 등의 역사의식은 유교적 정치이념을 토대로 하는 유교적 정치사관이였다. 이는 고려 전기로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주로 관찬 사서를 중심으로 지배적인 풍조를 이루었는데, 이들 관찬 사서들이 갖는 유교적 정치사관은 합리주의의 추구라는 긍정적인 일면을 갖는 동시에 『삼국사기』에서 보듯이 고대 전통문화의 이해 범위 축소와 사회 모순에 대한 인식의 회피

---

1) 李基白, 「삼국유사의 사학사적 의의」, 『震檀學報』36 (서울: 震檀學會, 1973, 『韓國古典研究—『三國遺事』와 『高麗史』兵志』에 재수록), 131~135쪽.

리는 문제점도 보여준다.

그런데 고려의 정치가 몽고의 간섭을 받는 시기에 이르면 유교적 정치사관만으로는 현실의 모순을 극복하는 힘의 원천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민족적인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역사의식은 정신적인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외세의 압력을 극복하고자 하는 정신사관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런 정신사관을 강하게 반영하는 사서가 『삼국유사』이다.

일연이 『삼국유사』를 찬술한 동기는 遺事라는 이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史家의 기록에서 빠졌거나 자세히 드러나지 않은 것을 드러내 표현하려 했던 데서 찾을 수 있다. 『삼국유사』는 『삼국사기』나 『해동고승전』 등의 기존 사서를 존중하면서 이에 대한 보충의 의도에서 새롭게 편찬한 것이다.

일연은 『삼국사기』에서 제외된 고대 문화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그 중에서도 특히 불교사를 중심으로 『삼국유사』를 편찬하였다. 일연은 고기, 사지, 금석문, 고문서, 사서, 승전, 문집 등에서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발굴해 낸 민간 전승의 수많은 설화와 전설들도 주요 자료로 제시하여 『삼국유사』에 수록하였다. 이 때문에 『삼국유사』는 불교만의 기록이 아니라 사서와 불교 기록의 두 가지 성격을 아울러 갖는다.

일연은 특히 불교 관련 서술에서 우리나라의 문화 전통을 불교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일연이 민간전승 사료들을 수집하여 『삼국유사』에 적극적으로 수록한 것은 당시 몽고의 압제 하에서 이민족의 간섭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서민들의 열렬한 신앙심을 북돋아줌으로써 기층사회의 역량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였다. 이에 따라 불교문화 유적과 그것이 만들어진 연유를 되돌아봄으로써 우리 역사에 끼친 불교의 위덕에서 문화 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삼국유사』는 이러한 불교 신앙의 역량을 강조하는 것 못지않게 신라 불교의 전반적인 면모를 잘 드러내 주기도 한다. 『삼국유사』는 신라 불교사의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

서 『삼국유사』는 신라의 교학이나 종파의 상황을 비교적 정확하게 나타내 주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sup>2)</sup>

신라 불교의 내용을 알려주는 기사는 『삼국유사』 전반에 걸쳐 찾을 수 있다. 그중에서도 義解篇은 특히 불교사상과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모아 놓은 부분이다. 塔像篇보다 비중이 크게 다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의해편 또한 『삼국유사』 구성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

이 글은 일언이 신라 불교 사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를 『삼국유사』의 편찬에 반영하였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의해편의 구성과 내용 기술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를 중국의 고승전과 같은 다른 僧傳과의 비교와 함께 『삼국유사』의 다른 편과의 비교를 통해 의해편 구성과 서술의 특징과 의의를 해명하고자 한다.

## II. 삼국유사의 체제와 의해편

『삼국유사』는 전 5권에 9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권은 王曆과 紀異편이고 제2권은 기이편의 계속이다. 제3권은 興法편과 塔像편이며 제4권은 義解편이다. 그리고 제5권은 神呪 感通 避隱 孝善편이다. 이와 같은 『삼국유사』의 體裁는 통상적인 史書나 僧傳과는 달리 자유로운 그러나 나름대로의 면밀한 편성 형식을 보인 독특한 것이다.<sup>3)</sup>

2) 崔柄憲, 「三國遺事に 나타난 韓國古代佛敎史 認識」, 『三國遺事の 綜合的 檢討』(성남: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7), 193~204쪽. 신라 불교를 화엄종과 법상종, 열반종과 신인종과 선종 그리고 종파의식을 벗어난 원효불교로 이해하였지만 종파의식은 미약하였다고 한다.

3) 『삼국유사』의 성격에 대해서는 갖가지 견해가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金煥泰는 정연한 체제 하에 찬술된 佛敎 史書로(「三國遺事の 體裁와 그 性格」, 『東國大學校 論文集』 13, 서울: 東國大學校, 1974, 6~8쪽), 鄭求福은 고승전 체제만도 아니고 정통 역사 서술체제도 아닌 일연의 뚜렷한 체계적인 의식 위에서 쓰여진 宗教史로(「三

불교 사서나 승전에 없는 『삼국유사』의 특색은 왕력편과 기이편이다. 전체 5권 중 2권의 이 두 편이 실제 차지하는 내용의 분량은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 흥법편과 탐상편이 차지하는 3권은 1권이나 2권과 분량이 비슷하다. 이에 비해 의해편만으로 구성된 4권과 신주편·감통편·피은편·효선편이 이루는 5권은 앞의 3권에 비해 분량이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sup>4)</sup>

중국에서 편찬된 『梁高僧傳』이나 『唐高僧傳』 및 『宋高僧傳』들은 대체로 譯經 義解 神異 習禪 明律 護法 感通 亡身(遺身) 讀誦(誦經) 興福 經師 唱導 雜科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삼국유사』가 이들 고승전 체제에 유의하여 편목을 구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삼국유사』 찬술에 조금 앞서 편찬된 중국의 불교사서인 『佛祖統紀』의 편목도 일부 관련이 있어 보여 이들과 비교되기도 한다.

그러나 전체 분량의 절반을 배당한 왕력편과 기이편의 구성은 다른 고승전 체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불교에 국한되지 않고 역사 전반에 관한 자료를 모아 엮은 것이 이 두 편이다. 이러한 체제 구성은 『삼국유사』의 독창적 면모를 잘 드러내 준다. 나아가 왕력편과 기이편의 일반 역사를 앞에 두고 흥법 이하 불교 전반에 관한 내용을 일곱 편목으로 나눈 구성은 『삼국유사』가 이전의 불교 사서들에 비해 불교사의 영역을 크게 확대시켰음

---

國遺事の 史學史的 考察, 『三國遺事の 綜合的 檢討』, 성남: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7, 16~17쪽), 李基白은 저자 개인의 관심을 최대한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극히 자유로운 형식의 史書類로(『三國遺事の 史學史的 意義』, 『韓國의 歷史認識』 상, 서울: 창작과비평사, 1976, 112쪽) 보았다. 金相鉉, 「高麗後期の 歷史認識」, 『韓國史學史的 研究』(서울: 乙酉文化社, 1985), 95~98쪽 참조. 또 박진태 외, 『삼국유사의 종합적 연구』(서울: 박이정, 2002) 제3부에서 역사서·불서·민속지·국어자료집·국어학자료집·한문문체자료집으로 자세하게 분류하고 있다.

- 4) 『三國遺事』 제1권은 104면, 제2권은 98면, 제3권은 112면, 제4권은 62면, 제5권은 60면이다. (1) 왕력편은 30면, (2) 기이편은 59항목에 172면, (3) 흥법편은 7항목에 23면, (4) 탐상편은 30항목에 69면, (5) 의해편은 14항목에 62면, (6) 신주편은 3항목에 10면, (7) 감통편은 10항목에 26면, (8) 피은편은 10항목에 17면, (9) 효선편은 5항목에 9면으로 전체는 5권 9편 138항목에 436면이다(발문 제외).

삼국유사 편목 비교

三國史記 50	海東高僧傳 (2)	三國遺事 5卷	梁高僧傳 14	唐/宋高僧傳 30/30	佛祖統紀 54
本紀 28		王曆 1	譯經 3	譯經 4/3	本紀 8
表 3		紀異 +1	義解 5	義解 11/4	世家 2
雜誌 祭祀 1	流通 2	興法 1	神異 2	習禪 5/6	列傳 12
樂 1	*	塔像 1	習禪 1	明律 2/3	表 2
色服 1		義解 1	明律 1	護法 2/1	志 山家教典 1
車騎 1		神呪 1	亡身 1	感通 2/5	淨土立教 3
器用 1		感通 1	誦經 1	遺身 1/1	諸宗立教 1
屋舍 1		避隱 1	興福 1	讀誦 1/2	三世出興 1
地理 4		孝善 1	經師 1	興福 1/3	世界名體 2
職官 3			唱導 1	雜科聲德 1/2	法門光顯 1
列傳 10			(序錄1)		法運通塞 15
					名文光教 2
					歷代會要 4

을 보여준다.5)

『海東高僧傳』과 같은 『삼국유사』 이전의 불교 사서들은 고승의 傳記를 주로 기록하는 僧傳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후기에 들어서야 『法華靈驗傳』 같은 신앙을 강조하는 영험집이 나타난다. 이와 비교해 볼 때 『삼국유사』는 독창적인 체제에 폭넓은 불교와 역사를 다루고 있어서 분명한 차이를 보여준다.6)

이에 비해 승전 체제와 다를 바 없는, 그리고 불교사 영역을 확대시킨 성과로 꼽히는 항목은 흥법편과 의해편, 신주편, 감통편, 피은편, 효선편 등이다.

역사적 내용을 위주로 엮은 왕력편과 기이편과 달리 불교문화사적 내용을 이루는 흥법편 이하 7편은 모두 신라와 삼국의 불교사 전개 양상을 보여주고

5) 정병삼, 「일연」,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 상(서울: 창작과비평사, 1994), 86쪽.

6) 이러한 삼국유사의 체제를 주목한 표현으로 ‘歷史·僧傳類’로 부르기도 한다(金杜珍, 「三國遺事の體制와 내용」, 『韓國學論叢』23, 서울: 國民大學校 韓國學研究所, 2000, 9~16쪽).

있다.

홍법편은 삼국의 불교 수용과 연관이 있는 승려들을 다루고, 불교의 수용과 정착에 공헌한 대표적 활동가 10인을 선정한 홍륜사 금당 십성으로 마무리했다. 탐상편은 가장 많은 내용을 수록하여 불상과 불탑, 불전과 장엄구 등 불교문화의 구성과 그 연기를 밝힌 것이고, 의해편은 고승들의 전기를 통해 교리의 이해와 흥포 활동을 서술한 것이다. 신주편은 밀교 고승 3인의 이야기이고, 감통편은 신앙 영험, 피은편은 은일 활동가, 효선편은 불교적으로 해석한 효의 실천자들을 모은 것이다.

이와 같은 『삼국유사』의 전반적인 불교사 내용을 좀더 세분해 보면 의해편은 주로 불교사상사에서 손꼽을 만한 이들을 수록하였고, 신주편은 밀교 승려들의 활동만을 모은 것이므로 사상사 분야에 넣을 수 있다. 감통편은 불교 신앙의 영험을 모은 것이고, 피은편은 은일 수도자들의 이야기를 모은 것이므로 사상과 신앙에 해당하며, 효선편의 내용도 신앙과 연관이 많다. 탐상편은 사상과 신앙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유형문화 유산에 중점을 두어 불교 문화를 다룬 것이어서 다른 편목과는 다소 다르다. 불교 사회사 관련 자료들과 불교 교단사 자료도 이곳저곳에 산재되어 있다.

그러나 기이편이나 탐상편 이하의 다른 편에서도 불교사상사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화엄사상에 관련된 자료들은 의해편에 자장, 원효, 의상, 사복, 승전, 법해의 자료가 있는 것 이외에도 탐상편의 「대산오만진신」, 피은편의 「낭지승운보현수」, 효선편의 「진정사효선쌍미」 항목에 중요한 자료가 실려 있다.<sup>7)</sup> 좀 더 분야를 나누어 화엄사상·밀교사상·미륵사상·관음신앙 등의 불교사상으로 구분한 정리 성과도 있다.<sup>8)</sup>

7) 金煥泰, 「三國遺事에 보이는 華嚴思想」, 『韓國華嚴思想研究』(서울: 東國大學校 佛教文化研究院, 1982), 15~23쪽.

8) 박진태 외, 『삼국유사의 종합적 연구』(서울: 박이정, 2002), 211~274쪽. 이 책에서는 이에 앞서 종파 성립과 호국불교와 불연국토설을 합쳐 6 항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다.

해당 편이 갖는 중심적인 성격 이외의 불교사 자료를 보여주는 기사도 많다. 일부 예를 들면 구체적인 불교사상사 자료로서 기이편 「원성왕」 항목에 황룡사의 지해가 『화엄경』을 강의한 일을 기록하고 있으며, 피은편 「혜현구정」 항목에는 법화 사상과 보현 관행의 실천자였던 혜현의 행적이 뚜렷하다.

또 신앙 관련 자료는 다른 편에서 가장 많이 찾을 수 있는 기사이다. 기이편 「문무왕」 항목에는 김인문과 관련하여 관음도량 및 미타도량 자료가 있고, 「경덕왕」 항목에는 삼화령 미륵세존 신앙을 선도한 충담의 이야기가 있다. 백제의 자료로서 「무왕」 항목에 미륵삼존의 설법을 상징하는 미륵사 창건 설화가 있다. 탑상편의 「삼소관음」은 이름 그대로 관음신앙의 이름난 성지 세 곳을 모은 것이며, 「분황사천수관음」과 「낙산이대성」 역시 관음신앙의 중요한 자료이다. 같은 편의 「전후소장사리」 항목은 사리신앙의 면면한 양상을 알려 준다. 또한 「남백월이성」은 미륵과 미타 신앙이 병립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그리고 감통편의 「선도성모」 항목에는 점찰법회 개설이, 효선편의 「대성효이세부모」 항목에는 육륜회 개설과 일반인들의 보시 경향을 보여주는 기사가 있다.

불교 사회사 관련 자료로는 기이편 「성덕왕」 항목에 인왕도량 개설 기사가 있고, 「경명왕」 항목에는 여러 이적에 경전을 강설하여 이를 물리쳤다는 기록이 있다. 감통편 「금현감호」 항목에는 호랑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범망경』을 강설한 기사가 있다.

불교 교단사 관련 자료로는 기이편에서 승려를 국사에 봉한 여러 기사를 찾을 수 있다. 「경덕왕」 항목에서 안민가를 지은 忠談을 국사에 봉했고, 「경문왕」 항목에서는 왕의 즉위에 조언을 했던 範敎에게 대덕 작위를 주었다는 기사가 있으며, 「효소왕」 항목에서는 원축이 모량리인이기 때문에 승직을 주지 않았다는 기사가 있다. 흥법편 「보장봉로보덕이암」 항목에는 보덕이 10여 명의 제자를 각지에 전파한 열반종의 형성을 연상하는 기사도 있다.

이처럼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삼국유사』 전편에 걸쳐 다양한 불

교사 자료를 찾을 수 있다.<sup>9)</sup>

『삼국유사』와 중국의 양·당·송 3 고승전의 체제는 유사한 항목을 많이 보이지만 그 구성 순서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

중국의 3 고승전은 한결같이 譯經편 다음에 義解편을 수록하고 있다. 역경편이 인도 경전을 한역하여 소개한 것으로 중국불교의 시작을 말한다면 중국불교의 본격적인 전개를 말하는 것이 의해편이라고 할 수 있다. 편차 순서에서 의해편의 비중이 큰 것임을 내세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순서 뿐 아니라 분량도 큰 비중을 차지하여 『당고승전』은 전체 30권 중 11권이 의해편이다. 『양고승전』도 14권 중 5권이나, 『송고승전』은 30권 중 5권으로 唐代 선종의 유행에 따라 습선편의 6권보다 다소 작은 분량으로 된 것이 큰 변화이다.

『삼국유사』는 5권 분량 중에 1권을 의해편이 차지한다. 그러나 역사 관련 부분 2권을 제외하면 불교 관련 부분 3권 중 1권이어서 그 비중이 큰 것임을 알 수 있다. 물론 불교 관련 부분에서 가장 많은 분량은 30편을 수록한 탐상편으로서, 일연이 예배의 대상물인 탐상 등이 지나는 영험과 그것이 가능하도록 했던 그 조형 연기 이야기로 불교 신앙을 장려할 수 있다고 보았던 『삼국유사』 편찬 의도와 맞물린 구성이다.<sup>10)</sup> 편수는 탐상편이 30편, 의해편이 14편이지만, 분량으로는 탐상편이 69면인데 비해 의해편이 62면이어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탐상편이 문화유적 중심으로 구성한 것인데 비해, 의해편을 인물을 중심으로 구성한 것이어서 그 편성 의도가 차이가 있다.

의해편 이후는 다소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편목을 비슷한 순서로 구성하고 있다. 翫禪편을 다음에 구성하였는데, 『양고승전』만은 역경편과 습선편

9) 金杜珍, 「三國遺事の 佛敎史자료와 그 성격」, 『清溪史學』 16·17, 성남: 韓國精神文化研究院, 2002, 758~768쪽)에는 각 편을 따라 불교사 자료를 요목으로 정리하였다.

10) 洪潤植, 「三國遺事와 塔像」, 『佛敎學報』 17(서울: 東國大學校 佛敎文化研究院, 1980), 134~135쪽; 李基白, 「三國遺事 塔像篇의 意義」, 『斗溪李丙燾博士九旬論叢』(論叢刊行委員會, 1987), 152~163쪽.



사이에 신이편을 넣어 차이가 있다. 아직 선종이 본격적인 전개를 보이기 전의 상황이 『양고승전』에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정돈된 고승전 구성의 성격을 고려하면 당송 고승전의 의해편-습선편 연결 순서가 타당해 보인다.

세 고승전 모두 습선편 다음은 明律편이다. 이는 고승전 전반부를 義解習禪明律의 세 축으로 구성하려는 의도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3 고승전의 권수로 비교해 보면 각각 6/13, 18/30, 13/30으로 거의 절반에 이른다.

이와 같은 구성이기 때문에 불교사 전개상에서 이름 있는 대부분의 승려는 의해편에 수록되었다. 물론 여러 분야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긴 승려의 경우에는 다른 편에 수록되기도 한다. 智顓가 『당고승전』 습선편에 수록된 것이 그 예이다.

세 고승전에 수록된 우리나라 승려들도 의해편에 많이 수록되었다. 正傳 수록 승려를 기준으로 할 때, 『당고승전』에는 圓光, 慈藏, 慧顯이 수록되었다. 원광은 의해편에 수록되었지만(권13) 자장은 호법편에(권24), 혜현은 독송편에(권28) 수록되었다.<sup>11)</sup> 『송고승전』에는 모두 10인이 수록되었는데, 圓測·順璟·義湘·元曉가 의해편에(권4), 眞表가 명율편에(권14), 玄光·無相·地藏·無漏가 감통편에(권18·19·20·21), 元表가 잠과성덕편에(권30) 수록되었다.<sup>12)</sup> 이들 중 『삼국유사』에 수록되지 않은 원측·순경·현광·무상·지장·무루·원표를 제외한 원광·자장·원효·의상·진표가 모두 의해편에 수록되었다. 3 고승전의 호법편과 명율편에 수록된 것을 『삼국유사』에서는 의해편에 수록한 것이다. 혜현은 피은편에 수록되었는데, 『당고승전』

11) 『唐高僧傳』 권13 義解篇 9, 圓光; 권24 護法篇 하, 慈藏; 권28 讀誦篇, 慧顯, 『大正藏』 권51, 523, 638, 687쪽.

12) 『宋高僧傳』 권4 義解篇 2, 圓測·順璟·義湘·元曉; 권14 明律篇 1, 眞表; 권18 感通篇 1, 玄光; 권19 感通篇, 無相; 권20 感通篇 3, 地藏; 권21 感通篇 4, 無漏; 권30 雜科聲德 2, 元表, 『大正藏』 권51, 727, 728, 729, 730, 793, 820, 832, 838, 846, 895쪽.

이 독송편에 실은 것과 유사하다.

『삼국유사』에 누락된 승려 중에서 선종의 무상이 제외된 것은 『삼국유사』가 전통적 불교와 분리시켜 선종을 다른 성격의 불교로 파악한 데 따른 것일 수 있다.<sup>13)</sup> 그렇지만 의해편에 수록해야할 원측과 순경이 제외되었고, 천태와 관련 깊은 현광, 지장신앙을 대표하는 지장, 이적을 보인 무루, 천관보살 신앙의 원표 등은 감통편 등 다른 편에 수록될 수 있지만 누락되었다. 이는 『삼국유사』가 중국의 3 고승전을 참조하고 그 체제나 내용을 활용하면서도 그와 다른 나름의 새로운 체제를 구상하고 내용을 수집 조직하여 새롭게 구성하였음을 알게 한다.

『삼국유사』는 그보다 약 70년 쯤 일찍 1215년경에 편찬된 『해동고승전』과도 구성의 차이가 있다.

『해동고승전』은 현재 처음 부분 2권만 남아 있는데, 이를 流通편으로 시작하였다. 『해동고승전』의 친자 覺訓은 중국의 3 고승전이 譯經편으로 시작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전을 번역한 일이 없어 역경편을 두지 않고 유통편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sup>14)</sup> 그러나 3 고승전이 역경편 다음에 의해편을 둔 것을 따르지 않고 유통편을 따로 두었다. 이는 각훈이 우리나라 승전 체제의 독자적인 면모를 구상하고, 새로운 체제를 고심한 끝에 제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현재 남아 있는 『해동고승전』 2권에 正傳으로 수록된 승려는 권1에 順道, 亡名, 義淵, 曇始, 摩羅難陀, 阿道, 法空, 法雲, 권2에 覺德, 智明, 圓光, 安含, 阿離耶跋摩, 慧業, 慧輪, 玄恪, 玄遊, 玄太의 모두 18인이다. 1권에 수록된 인물들은 모두 삼국의 불교 전래와 흥포에 큰 역할을 한 이들이다. 2권의 인물들은 중국과 인도에 구법의 길을 떠났던 이들로 구성하였다. 이를 『삼국유사』의 체제와 비교해 보면, 이중 순도·마라난타·아도 등은 흥법편

13) 崔柄憲, 앞의 논문, 202~204쪽.

14) 『海東高僧傳』 권1, “且道不自弘 弘之由人 故著流通篇 以示于後 按古梁唐宋三 高僧傳 皆有譯經 以我本朝 無翻譯之事故 不存此科也”

에 구성되었으며, 법공 즉 법흥왕은 이차돈과 함께 엮여 역시 흥법편에 수록되었다. 원광은 의해편에 구성되었고, 아리아발마 등 6인은 귀족제사의 항목으로 한데 묶여 역시 의해편에 수록되었다.<sup>15)</sup> 나머지 인물들은 중국인으로 고구려에 와서 불법을 흥포했다는 답시, 고구려의 이름 잃은 승려 망명, 의연, 신라의 진흥왕, 중국에 유학한 각덕과 지명과 안함이다.

『해동고승전』은 삼국에 불법을 처음 전한 승려와, 불법 흥포에 진력한 고구려의 승려들과 신라의 두 왕, 중국과 인도에 구법의 길을 떠난 승려들로 유통편을 구성하였다. 이에 비해 『삼국유사』는 흥법편을 삼국의 불교 전래와 삼국의 불법 흥포 내용으로 구성하여 『해동고승전』에서 제시한 순도·마라난타·아도 3인 외에 법흥왕은 이차돈과 묶어 한 항목을 이루고, 백제 법왕의 불교중시 정책과 고구려 보장왕의 불교경시 정책을 각각의 항목으로 구성한 후 흥륜사 금당에 봉안한 10성의 명단을 수록한 7항목으로 흥법편을 구성하였다. 『해동고승전』에 수록된 다른 승려는 성격에 따라 인도 구법 승려들은 의해편의 「歸竺諸師」에서, 원광은 의해편에 구성하고, 답시는 「아도」 항목에서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해동고승전』에 수록된 의연과 진흥왕·각덕·지명·안함 등 여러 항목은 『삼국유사』에 누락되었다. 이는 『삼국유사』가 중국의 3 고승전은 물론, 이전에 편찬된 『해동고승전』을 의식하고 그와 다른 체제를 구상하여 이루어낸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자료의 선택과 구성에서도 두 책은 다르다. 『삼국유사』가 원 자료를 보다 충실하게 인용하고 그 전거를 밝히는데 비해 『해동고승전』은 자료를 일부 가

15) 인도에 구법한 승려는 『해동고승전』에서 정전으로 든 아리아발마·혜업·혜륜·현각·현유·현태와 부전으로 든 玄照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2인을 들었는데, 『삼국유사』에서는 아리아발마의 구법 행적을 간단히 언급하고 이어 혜업·현태·求本·현각·혜륜·현유와 이름 모르는 2인의 이름만을 들었다. 여기서 거명한 이들은 모두 義淨의 『大唐西域求法高僧傳』에 수록된 이들이다.(『大正新修大藏經』 51-2; 5; 8쪽)

필하고 윤색하여 수록하고<sup>16)</sup> 전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이 많다.

### III. 의해편의 구성과 신라불교사상사의 전개

의해편은 14 항목의 구성으로 권4 모두를 차지하고 있는데, 분량으로는 전체 436면 중 62면을 차지한다. 각각의 항목은 1 「圓光西學」, 2 「寶壤梨木」, 3 「良志使錫」, 4 「歸竺諸師」, 5 「二惠同塵」, 6 「慈藏定律」, 7 「元曉不羈」, 8 「義湘傳教」, 9 「蛇福不言」, 10 「眞表傳簡」, 11 「關東楓岳鉢淵藪石記」, 12 「勝詮髑髏」, 13 「心地繼祖」, 14 「賢瑜珈 海華嚴」이다.

의해편에 수록된 14편의 항목은 진표에 관한 두 항목을 합치면 13 종류의 사실을 담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그 활동의 중심 승려는 인도구법승을 제외하면 원광·보양·양지·혜숙·혜공·자장·원효·의상·사복·진표·승전·심지·태현·법해의 모두 14인이다. 14편의 항목은 대체로 시기 순으로 수록되었다.

의해편은 다른 어느 편보다 신라 불교사상과 연관이 깊은 승려들을 모아 놓았다. 그래서 의해편은 바로 高僧傳이라 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sup>17)</sup> 이에 따라 의해편은 승려들의 전기가 주로 수록되었다. 『삼국유사』 전체에서 전형적인 고승전의 성격에 가장 합당한 부분이 의해편이다.

의해편에 실린 승려들의 전기는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중국의 역대 고승전이나 고려의 『해동고승전』에 실린 전기와 중복되는 인물이 많다. 그러나 수록 내용은 같지 않다. 「圓光西學」 항목의 경우와 같이 『당고승전』을 그대로 전재한 경우도 있으나, 이는 『殊異傳』의 자료와 너무 차이가 많아 이를 비교

16) 章輝玉, 『海東高僧傳研究』(서울: 民族社, 1991), 22~23쪽

17) 金杜珍, 「三國遺事の體制와 내용」, 『韓國學論叢』 23(서울: 國民大學校 韓國學研究所, 2000), 22쪽.

대조할 수 있도록 배려한 일연의 편찬 의도 때문이었다. 오히려 고승전과 같은 다른 자료에서 볼 수 있는 일상적인 전기 내용은 거의 신지 않았다. 그래서 『삼국유사』에 실린 자료만으로는 해당 고승의 온전한 전기를 만들지 못한다.

예를 들면 원효와 의상의 경우가 그렇다. 『삼국유사』에는 「元曉不羈」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는 원효의 출신과 출생지의 명칭에 따른 민간 전승 인연이 길게 서술되고 출생 사실이 이어진다. 그러나 다음에는 돌아다니던 행적과 불법을 흥포한 자취는 『당고승전』과 行狀에 실려 있으므로 다시 수록하지 않고, 대신 鄉傳에서 기록하고 있는 한두 가지 특이한 일을 적는다고 밝혔다. 그 내용은 요석궁 공주와의 만남과 아들 설총의 출생, 그 후 거리에 나선 대중 교화, 이름의 상징성, 『화엄경소』와 『금강삼매경론』의 찬술, 입적과 설총의 분황사 진용 예배 등으로 구성되었다. 일반적으로 원효 사상의 중추를 이루는 것으로 평가되는 『기신론소』에 대한 서술이 없는 반면 『금강삼매경론』에 대한 기술이 본문과 讚에도 이어진 점이 특색 있다. 생애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수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절적인 이들 자료만으로 원효의 생애를 상세하게 밝힐 수는 없는 것이다.

「義湘傳教」 항목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름과 출가를 간략히 들고 나서 당에 가서 지엄 문하에서 수학하기까지의 어려움과 특별한 인연을 비교적 길게 서술하였다. 그리고 신라에 귀국할 때의 사정과 부석사 창건 내용이 간단하게 이어진다. 다음에는 법장이 의상에게 보낸 서간 전문이 『圓宗文類』를 인용하여 수록되었다. 이어 전교십찰과 『법계도』 저술의 의의, 십대제자와 그들 중 몇몇의 사적에 이어 황복사에서 탐돌이하던 연기를 수록하였다. 그리고 그 밖의 나머지는 최치원이 지은 本傳에 있다는 말로 마쳤다. 역시 이 자료들만으로는 의상의 생애를 다 밝힐 수 없다.

원효와 의상의 경우를 보면 여기에 수록된 기록만으로는 전기 자료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생몰년도 알 수 없다. 두 사람의 생애 중에 특별한 행적이

비슷한 비중으로 다루어진 것도 아니고, 두 사람 각자의 생애 중에서 두드러진 인연담을 따로따로 모아 서술하였을 뿐이다. 이는 다른 인물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 불완전한 자료 모음을 통해서도 원효와 의상의 생애에서 기념적인 일은 대체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표적인 저술과 그것이 만들어진 사정도 수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연의 찬술 경향은 다른 승전에 전하거나 따로 전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자료에 없는 내용을 중심으로 의해편을 구성한 특징에 부합되는 것이다.<sup>18)</sup>

의해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 번째 「圓光西學」은 원광의 활동을 수록한 온전한 전기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의해편 전체에서 온전한 전기를 갖춘 항목은 그리 많지 않다. 원광 외에 자장이 있는 정도이다. 그런데 원광전에는 온전한 전기가 두 가지나 수록되었다. 『唐高僧傳』(續高僧傳)의 원광전과 『古本殊異傳』 소재의 원광전을 나란히 수록한 것이다. 이는 두 가지 전기 기록이 서로 다른 부분이 많아 그대로 실어 독자의 판단을 기다린 일연의 찬술 의도로 인해 생겨난 일이다.<sup>19)</sup> 일연은 이 두 전기에 이어 『三國史記』 열전에 실린 세속오계 기사와 원광의 백고좌도량 주재와 점찰보 설치 행적을 더 실고 나서 원광 전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일연은 원광의 두 전기를 모두 실고도 거기에 없는 점찰보 시행을 의의 깊게 평가하고 세속오계의 가르침과 함께 부가 수록한 것이다.

두 번째 「寶壤梨木」에는 여말선초에 활동한 보양이 운문사를 증건한 이야기인데, 고려조의 주첩 공문과 고적비보기 기사 등을 인용하였다. 보양의 전체적인 전기가 아니라 특정 사실에 관한 사료를 모아 만든 것이다. 그런데 일연이 지적하듯이 후대 사람이 운문사를 연결 고리로 신라말에 활동한 보

18) 金杜珍, 위 논문, 22쪽.

19) 『三國遺事』 권4 義解, 圓光西學. “據如上唐鄉二傳之文 但姓氏之朴薛 出家之東西 如二人焉 不敢詳定 故兩存之……因辨於此 不加減一字 載二傳之文詳矣”

양과 삼국기 신라에서 활동한 원광의 사적을 혼동한 부분이 있다. 의해편 전체 수록 인물이 대체로 시기순으로 수록되었지만, 이 두 인물이 嘉翹岬을 중심으로 연계되는 면이 있어 원광에 이어 보양을 나란히 수록한 것이다.

세 번째 「良志使錫」은 양지가 불상과 탑 등을 잘 만들었다는 것과 錫杖을 잘 부렸다는 이야기를 수록한 것이다. 이러한 양지의 이야기는 의해편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항목이다. 탑상편의 기록으로 넣어야 타당할 성격의 항목이다. 그런데 탑상편은 인물 중심이 아니라 유적 중심으로 편성한 것이므로 양지는 의해편에 수록한 것으로 생각된다.

네 번째 「歸竺諸師」는 아리아발마 이래 인도에 구법행을 나섰던 승려 9인의 기록을 의정의 『大唐西域求法高僧傳』에서 가져와 수록한 것이다. 아리아발마의 간략한 인도 행적 이외에는 이름만 든 정도이지만 끝에 신라의 인도 말 표현과 관련된 이야기를 덧붙였다.

다섯 번째 「二惠同塵」은 대중교화에 나섰던 惠宿과 惠空 두 사람에 대한 기록이다. 다른 의해편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의 이적을 중심으로 모아 엮은 것이다. 그러나 혜공은 구마라집의 공관불교를 수용한 승조의 저술 『肇論』을 보고 자신이 옛날에 지은 것이라고 하였고, 사람들은 혜공이 승조의 후신임을 알았다는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다. 대승사상의 큰 줄기인 공관사상에 대한 이해를 알게 하는 부분이다.

여섯 번째 「慈藏定律」은 자장의 생애를 비교적 상세하게 엮은 것이다. 생몰년은 없지만 생애 중 입당과 귀국년은 연대도 제시하고, 중요한 활동을 구체적으로 엮었다. 자장의 전기도 『당고승전』과 향전을 의식하여 그곳에 없는 이야기를 첨부했음을 명기하기도 하였다. 특히 大國統이 되어 승단을 관장한 부분에서 신라 승관의 전반에 대한 자료를 분주로 부기한 것은 사료적 가치도 큰 서술이기도 하다.

일곱 번째 「元曉不羈」와 여덟 번째 「義湘傳教」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라 불교사상의 정립에 지대한 역할을 한 원효와 의상의 기록이다. 그 자체

로 온전하지는 않지만 두 인물의 특색을 잘 드러낸 편찬이다.

아홉 번째 「蛇福不言」은 행동거지가 보통 사람과 달랐던 사복이 모친의 사망을 고리로 원효에게 수준 높은 연화장세계를 열어 보였다는 짙막한 기록을 엮은 것이다.

열 번째 「眞表傳簡」과 열한 번째 「關東楓岳鉢淵藪石記」는 둘 다 진표에 대한 기록이다. 의해편의 다른 편과 어울리는 것은 「진표전간」 항목이다. 여기에는 진표의 출신과 출가 그리고 점찰법 수행을 특기하고 이의 전파와 제자들의 활동도 덧붙였다. 그리고 이 『점찰경』의 참법에 대한 중국의 금제를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다음의 「발연수석기」는 고려 때(1199년) 만들어 세운 鉢淵寺의 진표 비문을 수록한 것이다. 대체로 유사한 내용이지만 진표의 교화가 속리산을 거쳐 금강산에 이르른 행적을 열거하고 마지막 수행 연기도 상세하게 밝혔다. 이 발연사 비문은 일연의 제자인 無極이 진표전간의 기사와 비문의 내용이 다소 다른 점 때문에 이를 대비시켜 판단하도록 첨가한 것이다.<sup>20)</sup> 제자인 무극이 일연의 편찬 의도를 계승해 편집한 사실을 알려주는 기사이다.

열두 번째 「勝詮羈馱」는 범장의 화엄학을 전해온 승전의 이야기이다. 승전이 귀국할 때 범장이 의상에게 보내는 저술을 가져온 것과, 갈항사에서 돌멩이를 대상으로 화엄을 강의했다는 사적을 적고 있다.

열세 번째 「心地繼祖」는 진표의 제자인 영심을 이어 활동한 심지의 이야기인데, 점찰법의 내용을 이루는 간자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마지막 열네 번째 「賢瑜伽海華嚴」은 유가의 태현과 화엄의 범해 두 사람의 경쟁을 기록한 것이다. 태현의 용장사 행적을 간단히 언급하고는 기우계 행사에 이적을 보인 사적에 이어 이듬해에 황룡사의 범해가 더 큰 이적을 보인 사적을 수록하였다. 이 때문에 의해편의 다른 제목과는 달리 이 편만 인

20) 『三國遺事』 권4 義解, 關東楓岳鉢淵藪石記. “此錄所載眞表事跡 與鉢淵石記 互有不同 故刪取瑩峯所記而載之 後賢宜考之 無極記”



물의 이름과 의미를 결합한 제목이 아니라 유가와 화엄을 대비한 별다른 제목이 되었다. 이를 제외한 의해편의 제목은 거의 일관되게 앞부분은 승려 이름 두자, 뒷부분은 그 내용을 압축한 두 글자로 구성하였다.

의해편 14항목을 종합하면 이중에 좁은 의미의 불교사상을 중심으로 기술한 것은 원광, 자장, 원효, 의상, 진표, 승전, 심지, 태현과 법해로 한정할 수 있다. 혜숙과 혜공은 진도 활동이 중심 내용이고, 사복은 이적을 보인 것을 강조한 것이며, 보양은 운문사의 창건 설화이고, 양지는 예술가로서의 활동이 중심을 이룬다. 혜숙과 혜공 또는 사복의 대중교화 활동을 넓은 의미의 불교사상의 전개로 보면 이들 항목의 설정과 구성은 타당해 보인다. 실제로 『삼국유사』에서 의해편 외에 이들을 적절하게 수록할 다른 편은 마땅하지 않다. 자장이 고골판을 수행하였고, 양지가 영묘사 장륙상을 만들 때 선정에 들어 작품을 제작하였다는 것 등은 선정 수행의 일면을 보인 것들이지만 일연이 신라 후기 선을 따로 정리하려 했던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들은 그쪽에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불교사상 위주로 구성을 간추리면 의해편의 편차 순서가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편찬되었음을 알게 한다. 원광에 바로 이어 운문사 활동의 보양을 수록하기는 했지만, 의상과 연계되는 승전이나 진표를 뒤잇는 심지는 바로 이어 수록하지 않았다. 이는 일연이 기본적으로 불교사의 시대적 전개에 중점을 두어 의해편을 구성하였음을 말해 준다.

신라 불교사상사는 여기에 수록된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 전개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신라 불교사상사의 전개가 중고기에는 섭론 지론 등 유식계 사상이 중심을 이루고 공관 사상과 계율 사상이 함께 흐름을 이루었으며, 통일기 이후에는 원효의 일심사상과 유식사상 및 화엄사상 그리고 밀교가 중심을 이루었다고 보면 의해편에 수록한 승려들의 기록은 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원광-자장-혜공-원효-의상-진표-태현 그리고 승전, 심지, 법해 등이 이 범주에 든다. 여기에 神呪편에 수록한 3편의 밀본·혜

통·명량 등 밀교 관련 기록을 더하면 신라시대에 활동했다고 생각되는 교학 사상을 모두 망라하는 셈이 된다. 흥법편에 수록된 보덕의 열반 사상까지 포함하면 더욱 포괄적이다. 다만 신라 하대에 수용되어 큰 영향을 미쳤던 선종이 제외된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삼국유사의 편찬 의도 자체가 선종을 제외한 삼국과 신라 불교의 정리라는 점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구성이다.

말하자면 삼국유사 의해편의 줄거리는 신라의 불교 수용에 즈음한 시기를 정리한 흥법편에 이어 신라 불교사상이 이해되고 성숙되어 독자적인 사상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을 그 주요 담당자를 중심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라 불교사상의 핵심 과정을 수록한 것이 의해편인 것이다. 그러나 『삼국유사』 전체에서 불교 관련 부분으로만 보아도 흥법편과 탐상편에 이어 의해편이 수록된 것은, 『삼국유사』가 탐상편의 신앙 유적과 그 바탕에 깔린 불교신앙의 의의를 일차적으로 강조한 편찬 의도에 따른 구성일 것이다.

다음에 생각할 과제는 의해편에 누락된 인물들의 문제이다. 의해편에 수록된 인물과 그들의 사상이 신라불교의 중심 내용을 반영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일연은 『삼국유사』에서 다른 승전 곧 『해동고승전』이나 『송고승전』에 수록된 인물들을 일부는 수록하고 일부는 수록하지 않았다. 이는 『삼국유사』의 편찬이 자료 부족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님을 말해 준다. 사상적으로 중요한 활동을 했던 유식사상의 원측과 순경, 법화사상의 현광이 제외된 것은 일연이 파악한 신라불교 사상의 중심 구조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sup>21)</sup> 선종의 무상은 예외로 놓더라도 의해편의 대상은 아니지만 신앙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지장이 누락된 것도 일연의 일정한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 할 것이다. 원측이나 지장은 당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제외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신라 승려들의 활동상을 망라한 것이 아니라 신라 땅에서 활동하며 신라인들의 사상과 신앙을 이끌었던 인물을 중심으로

21) 圓測은 독자의 항목은 없지만, 해동고덕인데 모량리인이기 때문에 승적을 주지 않았다는 기이편 효소왕 항목에 나온다.

선정했다면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이는 歸竺諸師가 인도에 구법의 길을 떠났다가 대부분 신라에 돌아오지 못했음에도 항목을 설정한 것과는 다르다. 이러한 인물 선정의 문제는 일연의 불교사 인식과 관련하여 장차 더 고려해야 할 과제이다.

#### IV. 맺음말

『삼국유사』는 13세기 말의 고려 문화 의식을 잘 보여주는 훌륭한 기록이다. 고려 후기의 혼란한 사회에 대한 반성에서 우리 문화를 자주적인 입장에서 새로이 이해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역사적 신이에 대한 기록과 불교 신앙의 옹호를 위한 주제를 선택하여 광범위한 사료를 수집하여 자유로운 체제로 전개한 것이 『삼국유사』이다.

일연이 이 나라가 오래도록 불연 깊은 땅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혼란한 민심에 강렬한 신앙을 고취시키려는 의식에서 민족의 자주정신과 긍지를 고취하고자 역사의 신이를 모으고 불교 신앙의 내용물을 수집하여 한데 엮은 것이 『삼국유사』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삼국유사』를 통해 구축할 수 있는 가장 풍부한 연구 분야는 불교사이다. 불교 관련 내용 중에서도 특히 구성 순서나 내용의 수량 그리고 분량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塔像篇이었다. 불탑이나 불상 불전 장엄구 등 불교 조형물의 구성과 아울러 그 조성 연기에 큰 관심을 갖고 그와 관련된 영험이나 신앙을 장려한 것이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구성이 義解篇이다. 구성이나 분량에서 의해편은 탑상편에 버금가는 체계를 보여 준다. 이 의해편의 내용은 전형적인 高僧 傳記와 가까운 것으로서, 이를 통해 불교 사상의 정립과 흥포 양상을 살펴보는 佛敎思想史를 구성할 수 있다. 물론 신주편도 밀교사상이고, 감통

편 이하의 내용들이 신앙과 수행을 다룬 것들이어서 이들 모두가 불교사상의 일면을 이루지만, 좁은 의미의 사상사 구성은 의해편을 통해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일연은 중국 역대 고승전이나 고려의 『해동고승전』 등에 수록된 인물들을 참조하면서 이들을 새로운 구성으로 정리하여 의해편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이루어진 『삼국유사』 의해편은 삼국기에는 유식과 공관 및 계율, 통일기와 그 이후에는 원효사상과 유식과 화엄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시기에 따른 전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당시 신라 불교사상의 중심 내용을 차례로 엮어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삼국유사』 의해편은 신라 불교사상의 전개 과정을 보여주는 구성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적 관점에서 돌아볼 때 일연이 의해편에 수록한 인물 못지않게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원측을 비롯한 많은 인물들을 제외한 이유는 이 글에서 밝히지 못하였다. 이는 일연의 불교사 인식과 『삼국유사』 편찬의 이모저모에 대한 보다 확대된 이해와 함께 장차 밝혀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주제어

일연(一然, Ilyeon), 삼국유사(Sam-guk-yu-sa), 의해편(義解, Chapter of Eui-hae), 신라불교사상사(history of Silla Buddhist thoughts), 유식(Vijnanavada), 공관(Madhyamika), 계율(Vinaya), 원효(Wonhyo), 화엄Hwaem (Avatamsaka)

## *Sam-guk-yu-sa* and the History of Silla Buddhist Thoughts

Jung, Byung-Sam (Sookmyung Women's Univ.)

*Sam-guk-yu-sa* (三國遺事) is an excellent text which shows the cultural thoughts of late 13th century Goryeo. In the politically confused period, it focused on the subject of historical extraordinary and protect of Buddhist belief to understand korean culture independently. We can research plentiful materials of Buddhist history in *Sam-guk-yu-sa*. In *Sam-guk-yu-sa*, most important parts and subjects are the chapter of Tap-sang (塔像) and that of Eui-hae (義解). The chapter of Tap-sang contains the story about making Buddhist relics like pagodas etc. and relative stories about miracles and beliefs. The chapter of Eui-hae contains the constructions and spreads of Buddhist thoughts. So the chapter of Eui-hae is similar to the biography of the monks. In other chapters like Sin-ju (神呪) and Gam-tong (感通), we can find the matters of Buddhist thoughts also. But the accurate matters of Silla Buddhist thought, most of them are included in the chapter of Eui-hae. The chapter of Eui-hae is consisted of Vijnanavada (唯識), Madhyamika (空) and Vinaya in Three Kingdom's period, and of Wonhyo (元曉), Vijnanavada and Hwaeom(華嚴) in unified Silla period. In contemporary research, the history of Silla Buddhist thoughts is cope with the contents of

the chapter of Eui-hae. So the chapter of Eui-hae shows us the major parts of Silla Buddhist thoughts in accordance with the periodical change. In addition, some men of major thoughts like Woncheuk, and major part like Seon (禪) were omitted. To investigate that reason is a future problem.